

애플: 밸류에이션은 마음에 들지만, 제품 기술 전략은 아쉽다

Jan. 27, 2026 9:40 AM ET | [Apple Inc. \(AAPL\) Stock](#), [AAPL:CA Stock](#), [ZAAP:CA Stock](#)



Dhierin Bechai

Investing Group Leader

이 기사는 AI가 번역하였습니다. [영문 원문 보기](#) . 언어 및 지역 설정 [바로가기](#)

요약

- 애플(Apple Inc.)은 매수 의견을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285.42달러로 상향했다. 이는 12%의 추가 상승 여력을 의미한다.
- AAPL의 제품 혁신은 뒤쳐져 있으며, 점진적 업그레이드와 AI 기능에 의존해 교체 사이클을 유도하고 있다.
- 관세와 원가 상승이 마진에 부담을 주고 있지만, 견고한 잉여현금흐름과 안정적인 순부채가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한다.
- 새로운 성장축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AAPL의 견조한 EBITDA 및 현금흐름 성장세가 긍정적 투자의견을 지지한다.
- Looking for a helping hand in the market? Members of The Aerospace Forum get exclusive ideas and guidance to navigate any climate. [Learn More »](#)



Wirestock/iStock Editorial via Getty Images

Apple Inc. ([애플\(AAPL\)](#)) 주가는 [이전 리포트](#) 이후 6.4% 상승했다. 이는 시장 전체의 흐름과 유사하다. 하지만 매수 등급을 부여한 종목에서 기대하는 성과는 아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이러한 성과에 대해 주목할 만한 점을 짚고, 애플의 분기 실적 전망과 목표주가 업데이트도 함께 다룬다.

애플 주가 흐름 점검



이전 리포트에서 애플 주식에 매수 의견과 270.97달러의 목표주가를 제시했다. 2025년 11월 21일 기준으로 이 목표주가는 달성됐다. 해당 기간 동안 S&P 500(SP500)과 비교해 보면, 애플 주가는 14% 상승했고 S&P 500은 2.4% 상승에 그쳤다. 실제 누적 수익률만 보면 애플 주식은 시장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목표주가를 따랐다면 크게 초과 수익이 가능했다. 본 리포트에서는 내가 애플의 제품 전략에 대해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지만, 밸류에이션은 긍정적으로 평가해 매수 의견을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애플의 기회와 리스크

애플의 주요 기회는 AI를 접목한 신형 아이폰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 교체 사이클에 있다. 초기에 유럽연합(EU)과 중국 규제 당국의 이슈가 있었으나, 2025년에는 EU에서 Apple Intelligence 도입이 허가됐다. 그러나 중국 시장에서는 출시 계획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상황은 문제라고 판단한다. 이는 전반적인 제품 리프레시 전략의 한계도 보여준다. 많은 소비자에게 애플 인텔리전스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아이폰의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이폰 가격은 원가 상승으로 인해 인상됐으나, 실제로는 애플 기기의 가격만 크게 올랐을 뿐 제품 혁신은 뒤처지고 있다. 나 또한 아이폰 사용자이지만, 가격 인상과 기술적 개선의 부족으로 지난 5년 넘게 아이폰을 교체하지 않았다. 애플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제품 혁신이 부족해 1~2년마다 기기 교체를 유도하지 못하고, 아이폰을 여러 가격대로 세분화했음에도 소비자에게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AI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가 일부 존재하지만, 회사는 하드웨어 혁신 강화 또는 다양한 애플 제품 라인업에 더 집중해야 한다. 폴더블폰은 성장세를 되살릴 대안이 아니라고 본다. 하드웨어 매출은 애플이 단순히 외관만 바꿔 소비자에게 신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혁신을 보여줄 때에만 의미 있게 늘어날 수 있다. 아이폰 판매는 브랜드 가치 덕분에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애플이 외형 변화를 통해 현세대와 이전 세대를 구분하고, 최신 기기를 보유하도록 또래 집단 압박을 조성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업데이트 주기에서는 뒷면 디자인을 변경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겉으로는 모든 렌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아이폰이 신제품이고, 어떤 제품이 아닌지, 또 각기 어떤 가격대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이제 아이폰은 혁신이 아닌, 점진적인 개선과 디자인을 통한 계획적 진부화 전략이 결합되어 판매되고 있다.

지금 애플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혁신 역량을 높이거나, 연결형 헬스케어 기기·증강현실·스마트홈 등 새로운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하드웨어 매출을 다시 성장시키고 설치 기반 및 서비스 매출까지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Risk Category	Probability	Impact	Risk Score
iPhone demand saturation in developed markets	4	4	16
China exposure	4	4	16
AI execution risk vs hyperscalers (Microsoft, Google, Meta)	3	5	15
Input cost increases	4	3	12
Services growth slowdown / pricing pressure	3	4	12
Supply chain concentration (China manufacturing footprint)	3	4	12
App Store regulation (DMA, DOJ, fee compression)	4	3	12
Premium pricing vulnerable in downturn	3	3	9
Hardware innovation cadence (incremental upgrades fatigue)	3	3	9
Average Risk Score			13
Risk Rating			Elevated

The Aerospace Forum

종합하면, 점진적 제품 업데이트와 애플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피로감으로 인해 회사의 위험 등급이 높아졌다. 이 중 일부는 원가 상승에 기인하며, 관세 역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애플은 중국 내 대규모 생산과 소비 시장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중국과 미국 양국에서 규제 타깃이 되기 쉬운 구조다.

결국, 애플은 새로운 제품 성장축이 부재한 상황에서, 중국 중심의 저비용 생산 전략도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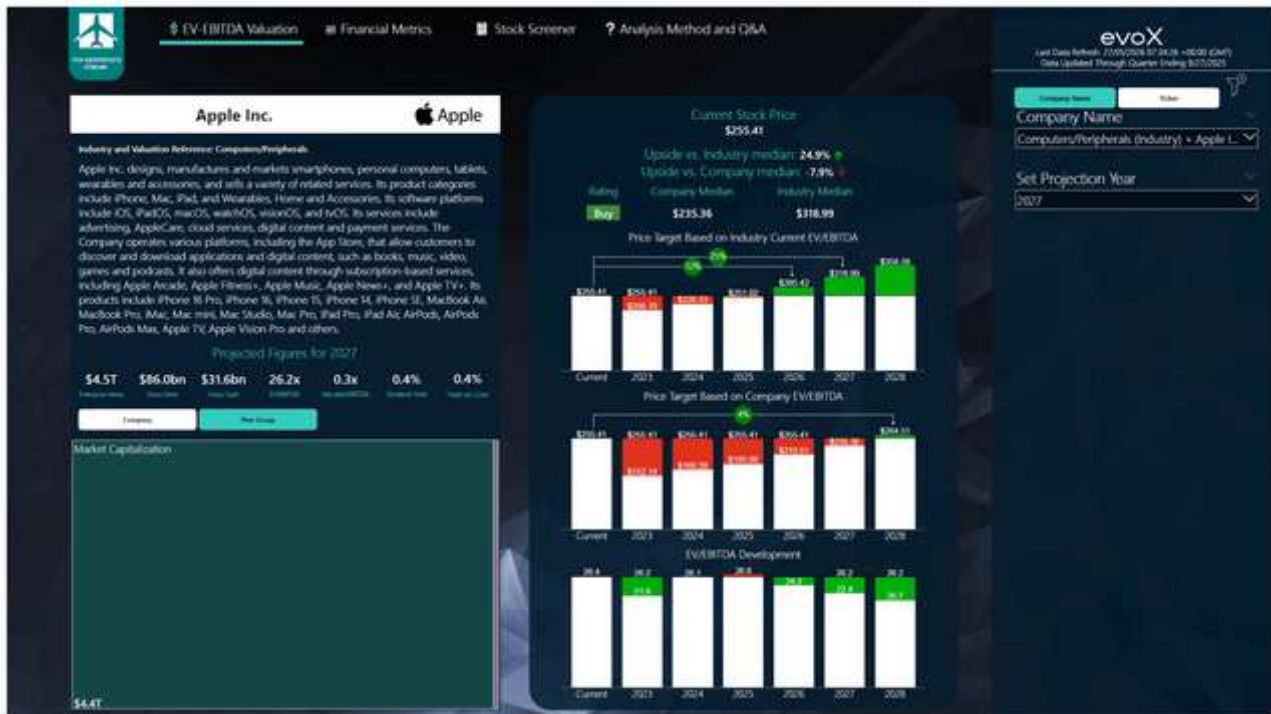
2026년 1분기 실적에 대한 애널리스트 전망

1분기 실적에 대해 [애널리스트들](#)은 애플이 매출 1,385억 달러(11.4% 성장)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본다. 예상치는 1,367억~1,385억 달러 범위다. 1분기는 신형 아이폰 출시와 연말 시즌 효과로 연중 가장 실적이 좋은 시기다. 주당순이익(EPS)은 2.67달러(11.3% 증가)로 전망되며, 예상 범위는 2.45~2.80달러다. 매출 추정치는 지난 6개월간 7.4% 상향됐고, EPS 추정치도 10.4% 올랐으나, 최근 3개월간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애플이 신제품을 공개하진 않을 예정이다. 하지만 회사가 아이폰 실적에 기대거나, 성장률이 기대치보다 낮을 경우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필자는 관세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직전 분기에는 관세 관련 비용이 11억 달러 발생해, 제품 매출총이익률에는 150bp, 전체 순매출에는 107bp의 마진 역풍이 있었다. 서비스 부문 성장과 신흥시장에서의 매출 또한 주목할 만한 포인트다.

목표주가 상향, 애플은 여전히 매수 의견

장기 목표주가 산정에 있어 [The Aerospace Forum](#)은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EBITDA, 현금흐름, 최신 재무제표 데이터를 종합한 자체 스크리너를 활용한다. 매 분기마다 이러한 가정과 목표주가를 재점검하고 있다. 상세 분석 방법론은 별도 블로그에 정리했다. ([분석방법 자세히 보기](#))



The Aerospace Forum

애플의 기존 목표주가 270.97달러는 이미 달성된 바 있다. 이번에 목표주가를 285.42달러로 상향한다. 이는 12%의 상승 여력에 해당하며, 2026년 동종업계 거래배수(Peer Multiple)를 적용한 기준이다. 보수적 관점의 목표주가는 264.51달러로, 이는 2028년 예상 실적 대비 애플의 중간 EV/EBITDA 배수를 반영한 수치다. 2027년 실적을 기준으로 한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319달러(25% 상승 여력)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주가는 2025~2028년 매출 연평균 7.5%, EBITDA 연평균 8.4%, 잉여현금흐름 연평균 16.8% 성장과 모든 잉여현금흐름의 주주 환원을 전제로 한다.



The Aerospace Forum

EBITDA 마진은 2025년에 완만하게 상승했고, 2026년에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후에는 EBITDA 마진이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EBITDA 마진의 완만한 증가와 안정성은 관세 영향이 컸다고 본다. 공급망 조정이 관세 영향을 상쇄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또한 2026년에는 제품 믹스 변화가 마진에 부정적 압력으로 작용했다. 잉여현금흐름은 마진 압박과 설비투자 증가로 감소했지만, 자본집약도가 매우 높고 올해 이후 강한 현금 전환이 기대된다.

순부채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애플은 모든 잉여현금흐름을 주주에게 환원하면서도 부채를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재무적 여력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레버리지는 2023년 0.5배에서 2028년 0.3배로 낮아질 전망이다.

결론: 기술 전략은 아쉽지만, 밸류에이션은 매력적

애플 제품의 가격 인상과 점진적 업데이트 전략에 대해 개인적으로 인상적이라 느끼지 않는다. 애플은 제품 외관을 지속적으로 변경해 소비자에게 신제품 교체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전략이 바뀌는 듯하다. 이전 모델과의 차별화 포인트는 주로 AI 구현에 있는데, 이 부분이 추가적인 교체 수요를 유도할 가능성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는 새로운 제품 성장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EBITDA와 잉여현금흐름 성장에 기반한 투자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러한 투자 논리는 견고하며, 그래서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

More on my IG service

If you want full access to all our reports, data and investing ideas, [join The Aerospace Forum](#), the #1 aerospace, defense and airline investment research service on Seeking Alpha, with access to evoX Data Analytics, our in-house developed data analytics platform.



이 번역의 품질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This article was written by



Dhierin Bechai

22.59K Followers

Follow

Dhierin-Perkash Bechai is an aerospace, defense and airline analyst. Dhierin runs the investing group The Aerospace Forum, whose goal is to discover investment opportunities in the aerospace,

[Show more](#)

상기 내용은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만 영문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것입니다.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영문 원본이 적용됩니다. 번역문은 AI 도구를 사용하여 작성되며 인간이 검토하거나 편집하지 않았습니다. AI 기반 도구의 내재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역의 정확성, 완전성 또는 적시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애널리스트 고지 사항: 본인은 본 자료에서 언급된 어떤 회사의 주식, 옵션 또는 유사 파생상품에 대한 보유 포지션이 없으며, 향후 72시간 이내에 해당 포지션을 취할 계획도 없습니다. 이 글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해당 기사 작성과 관련하여 Seeking Alpha를 제외한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았으며, 이 글에서 언급된 회사와 어떠한 사업적 관계도 없습니다.

Seeking Alpha 고지 사항: 과거 실적은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투자가 특정 투자자에게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권고나 조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위에 명시된 견해나 의견은 Seeking Alpha의 전체 의견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Seeking Alpha는 허가받은 증권 딜러, 중개인 또는 미국 투자 자문사 또는 투자 은행이 아닙니다. 당사 애널리스트는 전문 투자자 및 개인 투자자를 모두 포함하는 제3자인 필자로서, 어떠한 기관이나 규제기관에 의해 면허나 인증을 받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